

## 1. 25회 시험문제 관련 분석과 총평

### 가. 전체적으로,

금년 민사서류 문제는 최근의 시험문제 중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되었고, 세심하게 청구취지의 틀까지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만 실수하지 않았으면, 예전처럼 청구취지 밖에 못쓰다거나 아니면 청구원인 조금 작성하다가 마무리 못하는 등의 일은 없이 대부분 기본적인 소장내용은 완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부분적으로,

변제총당을 영두에 두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변제총당 역시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게 주어졌으며, 계산내역까지 미리 제시해 주었습니다.

## 2. 마치며

1) 답안례나 의견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답안례는 물론 100% 완벽답안도 아니고 참고례에 불과 합니다. 다만,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 시간내에 작성가능 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하면 압축해서 답안례를 만들어 보고 여러번 다듬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손으로 베껴쓰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그러므로 늘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짧은 시간동안에 민사소송법도 함께 보아야 하고, 민소법 문제도 상당한 분량이고 여러개 분설되어 출제되는 상황에서 3-40분 시간에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아 자칫 시간배분의 어려움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3)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며, 시험이 끝나면 늘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문제가 평이하면 평이한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된 상황이었을 것이고, 논문식 시험의 특성상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점수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예외없이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듯이, 이제 부터 발표시 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1차 시험보다도 2차 시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채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발표시 까지는 결과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모든 수험생이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5) 그리고 시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점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누가 앞길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 후 전문가로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더욱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많은 분야의 실무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점점 무한경쟁의 상황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발표때 까지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법) 이천교